

# 국내를 넘어 세계 일류를 꿈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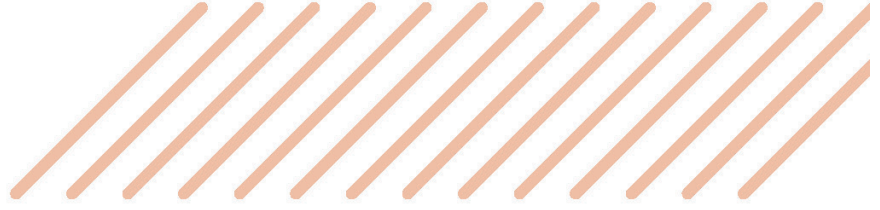
## 특수윤활제 전문 제조 기업

### (주)루브캠코리아



기계의 마찰 부분에 쓰이는 반고체 형태의 윤활유인 그리스(grease)는 자동차, 바이크와 같은 운송수단에서부터 카메라, 노트북 등의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요긴하게 쓰인다. 부품의 원활한 동작뿐만 아니라 고장을 방지하고 제품이 가진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시키는 데 윤활유가 하는 역할은 결정적인 것이다. (주)루브캠코리아는 대기업 중심의 국내 화학공업계에서 연매출 100억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한 굴지의 기업이다. 특수윤활제 전문 제조 기업으로서 루브캠코리아는 기술과 품질에 대한 굳건한 노력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고자 오늘도 정진하고 있다.







## IMF 위기 속에서도 실력과 품질로 당당히 우뚝 서다

루브캠코리아의 이승우 대표이사는 윤활유 업계에만 30년을 몸담아 온 베테랑이다. 영남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환경 공학 석사, 환경학 박사 학위를 연이어 취득한 그는 86년 독일계 회사인 크리버코리아 입사를 시작으로 윤활유 업계에 입문했다. 크리버코리아 퇴사 당시 기술제휴 기업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던 그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취지로 창업을 결심, 1998년 루브캠코리아를 설립하기에 이른다. 회사 설립 당시 IMF사태가 일어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수한 품질과 갖은 노력으로 설립 첫해 포스코 윤활제 국산화 업체 지정과 현대자동차 국산화개발승인을 얻으면서 업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QS 9000 품질시스템과 ISO/TS 16949 인증을 획득했으며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100만불 수출탑 수상 및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윤활유업계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삼성자동차 등과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을 비롯해 델파이, 쉘보레, 도시바 등의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는 등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차 확보해 나

가고 있는 중이다.

루브캠이라는 이름은 윤활유를 뜻하는 루브리컨트(lubricant)와 화학이라는 뜻의 케미스트리(Chemistry)를 합성한 이름이다. 즉 윤활유를 시작으로 화학의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세계적인 화학공업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루브캠코리아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만큼 루브캠코리아는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여타 기업들의 경우 자사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기술은 외부에서 들여오는 기술의존형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루브캠코리아는 자체 기술을 완성했음은 물론, 독자 브랜드 까지 보유하고 있다. 개발에 대한 제약이 많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루브캠코리아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자체 기술을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경북 고령에 위치한 루브캠코리아의 자체 생산 공장 내에는 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지금도 신제품 개발과 안정성 테스트, 품질 개량 등의 업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첨단 기술의 산물, 엔진닥터큐

루브캠코리아는 지금까지 주로 산업체에 들어가는 부품용 그리스를 생산해왔다. 제품 종류의 수만 해도 무려 500여 종으로 그 중 반고체 상태의 윤활유인 그리스가 생산 품목의 90%를 차지한다. 자체 기술을 토대로 한 독자브랜드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루브캠코리아는 2014년 8월 야심작인 엔진닥터큐를 출시했다. 엔진닥터큐는 자동차용 윤활제로 기존의 제품에 비해 교체시기가 2배나 긴 것은 물론 차량 성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품이다. 엔진닥터큐의 원료가 되는 것은 나노화된  $WS_2$ (이황화텅스텐)으로 이 소재는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폴러렌



(fullerene)이란 물질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이 대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기술 연구소 와이즈만에서 이 재료를 직접 들여와 1년간의 시험 끝에 혁신적 엔진오일 제품인 엔진닥터큐를 완성했다. 평소 신기술과 그에 대한 응용 분야에 관심을 기울리 하지 않았던 이 대표의 혜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노화된 구형의  $WS_2$ 가 엔진에 들어가면 엔진 마모가 방지되고 이를 통해 엔진 수명이 연장될 뿐만 아니라 연비 절감과 기계 효율, 매연 감소 등의 장점이 발휘된다. 엔진닥터큐는 현재 방송매체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활발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장 반응 역시 뜨거운 상태다.

유탄유 분야만큼이나 이 대표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홍보이다. 루브캠코리아라는 기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사 좋은 제품이나 탁월한 품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자사의 물건을 알릴 수 있는 준비된 홍보가 없다면 무용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회사 설립 초기 마케팅이나 홍보에 쉽사리 외부 인력을 쓸 수 없었던 이 대표는 직접 회사 로고를 고안하는가 하면, 제품 포장과 용기에 들어가는 문구나 글자체를 손수 고민하는 등 회사와 제품에 온 정성을 쏟았다. 숯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자사의 우수한 제품이 시장에서 활로를 찾아 많은 고객들에게 큰 감동과 만족을 안겨주길 진심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루브캠코리아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뿐만 아니라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부서, 홍보물 인쇄 및 촬영팀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온라인 쇼핑몰인 루브샵도 성업 중에 있다.

## LINC사업단의 지원으로 세계 시장에 도전할 자신감을 얻다

루브캠코리아가 LINC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기술융합복합사업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 디자인 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이었다. 사업단 덕분에 미국가전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를 참관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진국의 최신 기술 동향을 살피는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담당교수를 비롯해 고분자 및 화학공업을 연구하는 교수진들과 꾸준히 접촉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문과 조언을 얻은 것도 큰 수확이었다. 이 대표는 경북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향후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될 나노 그리스 개발

이 추진력을 얻었다며 사업단에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기술과 품질로 국내시장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루브캠코리아는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산학협력을 통해 자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고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의 동향 파악을 통해 앞으로 루브캠코리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2015년이 되면서 이 대표가 직접 내건 회사의 슬로건은 '도전'이다. 기계와 설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가 필수적인 것처럼 세계 산업계에서 루브캠코리아가 차지하게 될 독보적인 존재감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

